



# Korea Institute for Military Affairs

## News Letter

### 인도의 러시아 아쿠라급 핵잠수함 임대



Flag of India

\* Resource : India Homepage, March 12, 2019

지난 3월 7일 인도 주요 매체는 인도 정부가 러시아 정부와 아쿠라(Akula)급 핵잠수함을 10년 간 임대하기 위해 계약을 맺었으며, 이는 러시아제 S-400 대공방어체계를 55억 불에 도입 이후 최대 규모의 무기거래라고 보도하였다,

이번에 임대될 아쿠라급 잠수함은 세 번째로서 인도 해군에 의해 ‘차크라(Chakra)-Ⅲ’ 핵잠수함으로 명명될 예정이며, 임대 가격은 30억 불이다. 추진체계와 선체는 러시아 조선소에서 건조되고 인도에서는 독자적 수중탐지체계와 어뢰의 무기 등을 탑재하여 2025부터 10년간 인도 해군에서 사용할 예정이다.

현재 인도 해군은 1988년에 러시아 해군의 아쿠라급 핵잠수함 1척을 3년간 임대하였다. 이어 2012년에 아쿠라급 개량형 핵잠수함 1척을 추가로 임대해 ‘차크라(Chakra)-Ⅱ’ 핵잠수함으로 명명해 운용 중에

있으며, 2022년에 임대가 만료될 예정이다.

일부 서방 매체들은 차크라-Ⅱ 핵잠수함이 노후되고 임대 기간 중에 각종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여 2014년에 러시아 조선소에서 장기 수리를 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차크라-Ⅱ 핵잠수함이 인도 해군이 원하는 수준의 작전성능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이번에 임대계약한 ‘차크라-Ⅲ 핵잠수함’은 2025년에 노후된 차크라-Ⅱ 잠수함을 대체할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 해군의 아쿠라급 핵잠수함은 핵탄두 순항 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며, 인도 해군은 독자형 핵탄두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예정이다.

특히 차크라-Ⅲ 핵잠수함은 승조원 피로도, 군수 탑재 여건 등을 고려시 수중작전 기간이 최대 3개월로 알려져 있으며, 수중 은밀성이 우수하여 대잠 탐지 수단에 의해 탐지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임대를 통해 인도 해군은 핵투사 능력을 강화하고 파키스탄과의 핵경쟁에서 핵억제 능력을 향상시킬 의도를 갖고 있다.

인도 해군은 2009년부터 독자형 6,000톤 규모의 핵잠수함 아리한트(Arihant)급 핵잠수함을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여, 2016년부터 운용 중이다. 2번째는 2020년경에 인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나, 핵추진체계, 수중탐지체계 및 통신체계에 기술적 문제가 있어 추가 건조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인도 해군은 지연 공백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2013년부터 아쿠라급 핵잠수함을 10년간 임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탑재장비 및

무기체계 등에 대한 논란이 있어 연기를 거듭한 끝에 이번 3월 7일에 10년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다.

전문가들은 “2018년 7월에 파키스탄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8척의 원(元)급 AIP 잠수함 도입을 약 50억 불에 계약하였고, 인도 해군은 3번째 러시아의 아쿠라급 핵잠수함을 임대하고 독자형 핵잠수함을 추가로 건조하는 등의 인도와 파키스탄 간 수중제해권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양국 간 국경에서의 재래식 충돌이 핵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출처 : [Global Times, July 26, 2018](#); [The Economic Times, March 4, 2019](#); [The Indian Express, March 6, 2019](#); [Hindustan Times, March 7, 2019](#); [GlobalSecurity.org, March 8, 2019](#).